

2019년 9월 19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제역방역과 과 장 김대균(044-201-2531), 서기관 장순석(2537) / 제공일: 9월 19일(총 1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 장관,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방역 대응 관련 경기도 김포·동두천 소재 양돈농가 등 현장 점검

-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(이하 'ASF')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·연천을 포함 김포·포천·동두천·철원등 6개 시·군을 “ASF 중점관리지역”으로 지정하고, 방역 수단을 총동원하여 총력 대응하도록 조치(9.18일)한 상황과 관련하여,
 - 9.19(수), 경기 북부지역의 ASF 방역상황을 점검하고, 현장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김포시와 동두천시 소재 돼지농장 부근을 각각 방문하였다.
 - 현장에서 해당 지자체의 주요 방역추진상황을 청취하고, 돼지 타시도 반출금지, 축사 주변 생석회 배포, 소독 등 현장 이행이 중요한 대책에 대해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.
- 이 자리에서 ASF의 잠복기(4~19일)를 고려, 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,
 - 첫째, 농가에서의 소독이 방역의 근간임을 전제하고,
 - 둘째, 사람·차량 및 가축 등의 출입통제와 멧돼지와 접촉 차단을 철저히 해줄 것,
 - 셋째, 지자체에서 관내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서의 소독 등 방역 이행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